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를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무너진 조국에 대한 아픔을 그의 심령에 채워 주셨다(3~4절).

그가 포로 2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향해 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채운 상태를 말한다.’**

그의 눈물은 말씀에 근거한 반응이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시작이 되었다(5절). 그는 약 네 달 동안 통곡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한 후에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 구 소련 선교를 위해 김광신 원로목사님을 부르심.

1989년 한해 동안 수없이 많은 밤을 홀로 통곡하며 “주님, 구 소련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한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안에 서있었다. 말레, “충만하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단계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 적용 질문 1

1)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하여 이룬 주님의 사역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 2. 매 순간 기도로 사명을 정복하는 리더십 - 카바쉬의 사람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현실의 장벽 앞에서 기도로 정면승부를 한 사람이었다.

그는 네 달 동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았다. 왕은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우고 성벽 재건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며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한다.

(느 2:8)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카바쉬는 어떤 방해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는 영적인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기도에서 나온다.

1) 외부 정복하라 - 사명에 집중하는 기도

성벽 재건에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극심한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그 싸움을 말로 받지 않고 기도로 대항하였다.

(느 4: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2) 내부 정복하라 - 공동체의 구조 개혁

외부의 침투보다 더 심각한 영적전투는 내부의 분열이었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느 5:1)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는 문제를 덮지 않고 불의한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다. 카바쉬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아픈 현실을 직면하고, 불의를 끊어내는 힘이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역 140 년을 가로막고 있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

(느 6:15) **“성 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 적용 질문 2

1)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요?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 3. 하나님의 통치로 부흥을 일으키는 리더십 - 라다의 사람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백성 가운데 회복되고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성벽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라다)을 삶과 공동체 안에 실제로 세우는 리더십이다.

(시 103:19)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통치를 공동체 한가운데에 보여 준 사람이었다.

1) 말씀을 세우는 지도자

(느 8:1)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2) 질서를 세우는 지도자

말씀이 서자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그 기쁨은 순종할 힘이 되었다.

(느 8:10)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언어와 예배의 질서를 가르치며, 신앙이 삶이 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삶과 공동체에 세우는 것이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흐르는 한 고백이 있다.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평가에도, 자신의 유익에도 시선을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었으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사람으로 쓰여졌다.

❁ 적용 질문 3

1)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기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면 나누시기 바랍니다.